

# 종단협 운영 달라진다

## 25개 전체 회원종단 참여하는 이사회 체제로 사무국 역할 강화...국장에 환적 스님 내정



한국불교종단협의회 회장단은 8월20일 조계종 총무원장실에서 회동을 갖고 종단협 운영에 관한 의견을 교환했다.

‘한국불교종단협의회내 모든 회원종단이 운영에 참여한다?’ 조계종 총무원장 법장 스님, 중앙종회 의장 지하 스님, 태고종 총무원장 운산 스님, 천태종 총무원장 운덕 스님, 진각종 총무원장 효암 정사, 관음종 총무원장 홍파 스님 등 한국불교종단협의회(회장 법장, 이하 종단협) 회장단이 종단협의 운영체제를 바꾸기 위해 8월 20일 회동을 가졌다. 지난 7월 열린 총회에서 거론된 종단협의 역할과 방향에 대한 고

민을 다시 나누기 위한 자리다. 회장단은 총회와 이사회로부터 위임받은 사안에 대한 논의와 결의권을 갖고 있는 상임이사회를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는 현 운영체제를 모든 회원종단이 참여하는 이사회 체제로 다시 바꾸기로 의견을 모았다. ‘들러리’라고 인식하고 있는 상당수 회원종단들의 불만을 불식시키는 한편 이들 종단의 참여를 확대시키겠다는 의도다. 그러나 이사회 체제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큰 종단 부장 등 11명으로 구성된 상임이사회도 임정을 맞추기 쉽지 않아 1년에 겨우 6~7차례 밖에 열지 못하는 상황에서 25개 종단 총무원장을 포함한 31인으로 구성된 이사회가 제대로 가동될 수 있겠느냐는 것. 종단 관계자들도 “취지는 좋지만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고 우려한다. 한편 이날 회장단은 사무총장과 사무국에 대한 불만을 표했다. “사무총장을 비롯해 사무국의 역할을

다시 설정하고 공정성과 책임성을 높여야 한다”며 사무총장의 임기제를 정관에 명시하기로 잠정 합의했다. 사무국 역할 강화를 위해 1년 넘게 공석으로 남아 있던 사무국장에 조계종 사회국장 환적 스님을 내정했다.

이날 회동에서는 이 외에도 중국의 고구려사 왜곡에 대한 불교계 차원의 대응이 필요하다는데 인식을 같이 했으며, 10월 22~27일 베이징에서 한·중·일 불교우호교류대회에 북한의 조선불교도연맹을 초청하는 방안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그러나 이날 회동에서 종단협 운영의 문제만 제기했을 뿐 사찰환경 훼손 대응, 연합감찰제 등 종단간 협력력이 요구되는 사안에 대한 논의는 이뤄지지 않았다.

부회장 종단의 한 스님은 “이번 회동은 회장 법장 스님 취임 이후 처음 열린 회동이라는 상징성 외에도 종단협 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의견을 교환했다는데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 회장단, 이사회, 사무국이 각각의 역할을 고민하면서 종단간 협의기구로서의 정체성을 세울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박봉영 기자 bypark@buddhapia.com

# “종무행정 투명화 힘쓸터”

## 법상종 12대 총무원장 해월 스님



“오랜 역사에 걸맞은 종단으로 거듭나기 위해 종도들의 화합을 실현하고 법상종의 중지중풍을 쇠신해 나갈 방침입니다. 아울러 종단을 합리적으로 운영함으로써 종도들의 참여를 이끌어 내겠습니다.”

9월 1일 안산 대선사에서 열리는 종도연수교육에서 취임사를 대신한 법상종 제12대 총무원장 해월 스님(사진)은 “화합과 참여”를 종무지표로 삼고 종단을 운영해 나갈 방침이다. 이를 위해 종무행정 투명화, 교구총무원 권한 확대, 승려양성체계 확립 등을 최우선과제로 종단체질 개선에 나선다.

해월 스님은 투명한 종무행정 실현과 관련 “종무원이 먼저 달라진 모습

을 보여주어야 종도들의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맑은 종단 분위기를 조성해 나갈 수 있다”며 “중앙종무기구의 8월 회계결산 내역을 처음으로 종도들에게 공개하는 등 변화는 이미 시작됐다”고 말했다.

스님은 또 현재 사무실을 임대해 사용하고 있는 종무원을 주석사찰인 안성 쌍미특사로 이전하겠다고 밝혔다. 불필요한 지출을 줄여 재정운용의 폭을 넓히는 등 효율적으로 종단 살림을 꾸려나간다는 것이다. 교육원 설립을 위해 평택에 3만여 평의 부지와 사찰을 확보했다는 해월 스님은 승려양성 및 교육체계를 바로 세우겠다는 강한 의지로 피력했다. 스님은 “종단 재정 마련을 위해 일정한 심사나 확인을 거치지 않고 종단기금을 받고 있는 것이 작은 규모 종단의 현실”이라고 지적하고, “스님들의 자질을 높이는 일이라 할 때 종단간 경쟁에서 우위를 차지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해월 스님은 이같은 뜻을 펼 수 있

는 종무원 집행부를 9월 10일까지 구성, 종단개혁을 점진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해월 스님은 1984년 총주 미륵사에서 법상종 종정을 지낸 우남 스님을 은사로 득도한 이래 서울 덕암사, 안성 쌍미특사에서 중창불사와 수행진전에 힘썼다. 이후 법상종 총무원 부원장, 안성사암연합회 총무, 안성외제21 공동의장 등으로 활동해 왔다.

박봉영 기자

## 진각종 교구청 사무지도

진각종(총무원장 효암)은 9월 13일부터 17일까지 서울교구청을 비롯 대구, 부산, 대전, 광주, 포항 등 6개 교구청별 심인당·종립유치원을 대상으로 사무지도를 실시한다.

이번 사무지도는 심인당 운영 및 포교 관리 전반에 필요한 사무지도와 사감인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을 점검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9월 13일 서울교구를 시작으로 14일 대구, 15일 부산, 16일 광주, 17일 포항·대전, 9월 20일 서울교구 순으로 진행된다.

## 조계종 중앙종회의원 연수

조계종 중앙종회의원 연수가 8월 24일부터 26일까지 진행됐다.

종회의원 스님들은 24일 ‘법률안 입안연습’(사진), 25일 ‘예산안 결산제도 및 심사’, 26일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 강의를 통해 입법기능과 예산 심사기능, 정책 감시기능 강화에 필요한 전문적인 소양을 쌓았다.

중앙종회의장 지하 스님은 인사말을 통해 “이번 연수를 통해 종회의원 스님들의 의정활동이 한 단계 성숙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사진=박재원 기자

## 관음종 국제보살계 수계법회

### 10월8일 장충체육관

관음종(총무원장 홍파)은 개산조 태허 대종사 탄신 100주년을 맞아 10월 8일 오후 2시 서울 장충체육관에서 국제보살계 수계법회를 봉행한다.

이날 법회에서는 한국불교를 대표해 각 종단 총무원장 스님을 비롯해 중국불교협회 상임부회장 성취 스님, 일한불교교류협회 회장 미야바이시 쇼겐 스님 등 한·중·일 3국의 불교지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보살계 수계의식이 진행된다. 관음종은 앞서 오전 10시 송인동 묘각사에서 총본산 불사 낙성을 결한 태허 스님 100주기 다례제와 창종 100주년 기념행사의 일환으로 내년 여름 국제학술강연회를 개최하는 한편, 태허 스님의 육필 원고를 모은 책자를 간행한다. 이 책자에는 관음종 창종 배경과 종단사, 태허 스님이 남긴 근·현대 불교사 등이 수록될 예정이다. (02)763-0054

## 미타종 재단법인 설립

### 이사장에 종정 벽암 스님

미타종이 총본산 단양 봉암사 등 종단 주요사찰을 중심으로 유지재단을 설립했다.

미타종(중앙본부장 성우)은 문화관광부로부터 ‘대한불교미타종 유지재단’이라는 명칭으로 8월 17일 설립인가를 받았다.

‘재미타종 이사장’에는 미타종 종정 벽암 스님이 추대됐으며, 이사는 부종정 해우 스님, 원로의원 병문 스님, 중앙본부장 성우 스님, 사회부장

대산 스님, 인천시 종무원장 태영 스님, 사무국장 회진 스님 등이 맡았다.

진구 스님은 감사로 선임됐다. 유지재단 관련 업무는 중앙본부 법원에서 담당한다.

미타종은 창종 62주년 기념일인 18일 창종 기념 및 유지재단 설립 기념법회를 단양 봉암사에서 봉행했다. 법회에는 종정 벽암 스님을 비롯해 부종정 해우 스님, 총무원장 성우 스님 등 종단 원로 및 간부 스님 50여명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부종정 해우 스님은 “소중한 삼보정체를 유지하기 위한 재단법인을 설립한 것은 불교계와 종도들에게 좋은 귀감이 될 것”이라며 “이에 만족하지 말고 사회복지법인 설립 등을 추진해 종단의 역할을 늘려나가는 한편 불교발전을 선도하는 종단으로 자리잡아 나가야 한다”고 당부했다.

박봉영 기자

## 태고종 법계고시 시행

태고종(총무원장 운산)은 9월 1일 오전 10시 서울 봉원사 삼천불전에 제9차 법계고시를 시행한다. 승단의 위계질서와 승가상 확립을 위해 매년 실시되는 법계고시는

고시위원회에서 지정한 주제의 논문을 제출한 스님 가운데 5급 선덕, 4급 종덕, 3급 대덕, 2급 종덕에 해당되는 스님들을 대상으로 하며, 필기 고사와 면접으로 치러진다.

또 총무원장의 추천과 고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추대되는 종사 법계는 9월 3일 특별전형을 통해 고시위원회에 추천된다.

태고종은 9월 15일 고시위원회 사정회의를 거쳐 합격자를 발표한다. 법계 품수법회는 10월 4일 오후 2시 봉원사에서 열릴 예정이다.

# 한국 불자들을 위한 달라이라마의 특별법문

## Dalai Lama's Dharma Teaching

달라이라마께서 <입보리행론>을 통해 인도의 위대한 불교 스승인 ‘산티데바’의 생생한 법음을 들려 줄 것이며 불교 수행의 핵심을 일깨워 줄 것입니다.

입보리행론(入菩提行論)은 보리심을 일깨워 보살행을 실천하고 이를 통해 깨달음에 이르도록 하는 수행 지침서로서 우리의 화엄경이나 법화경에 비견 할 만한 경전입니다. 달라이라마께서는 이 법문을 통해 한국 불자들의 신심을 북돋아 줄 것이며 올바른 수행의 길로 이끌어 줄 것입니다.

행사일정 (달라이라마 설법과 불교성지순례)

- A팀 기간: 10월 24일 ~ 11월 1일 9일간 (동참금 225만원) (인천-델리-자이푸르-델리(설법)-아그라-인천)
- B팀 기간: 10월 26일 ~ 11월 4일 10일간 (동참금 225만원) (인천-델리(설법)-아그라-산치대담-아잔타,엘로라석굴-मुंबай-인천)
- C팀 기간: 10월 25일 ~ 11월 3일 10일간 (동참금 225만원) (인천-델리-아그라-델리(설법)-산치대담-아잔타,엘로라석굴-मुंबай-인천)
- D팀 기간: 10월 26일 ~ 11월 8일 14일간 (동참금 245만원) (인천-델리(설법)-기원정사-룸비나-쿠시나가르-바이살리-파트나-나란다, 라즈기르-보드가야-아그라-델리-인천)

참가신청 및 문의 (자세한 내용은 연락주시면 안내문을 발송해 드립니다.)

Silkroad (주)실크로드여행사 전화: 02-720-9600

110-170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68-5 서흥빌딩 9층 (조계사 앞)

티벳 불교의 원전을 통해 달라이라마의 살아 있는 법문을 만나게 됩니다. 이번 특역은 달라이라마의 제자이며 17년간 공부한 청진스님과 티벳 대학에서 공부하고 있는 한국 유학생들이 맡아 진행합니다. 입보리행론은 청진스님이 번역한 교재를 제공합니다.

\* 본 행사는 신청하신 분들만 참석 가능합니다.

달라이라마 존자님이 한국 불자들을 위해 티벳 불교의 원전인 입보리행론(깨달음에 드는길)을 4일동안이나 설법합니다. 평생에 만나기 어려운 이 귀한 법회에 동참하여 좋은 인연 맺으시기 바랍니다.



- 일시: 2004년 10월 27일 ~ 10월 30일(4일간)
- 장소: 인도의 수도 델리
- 주관: 여수 석천사 石泉寺(진옥스님 061-662-1607)